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4.25(월) ~ 2022.4.29(금)

제공일시 2022 05 0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4.25(월) ~ 2022.4.29(금)

제공일시 2022 05 0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러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 검토”

- EU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 이들 국가가 **러시아 원유를 구매하고 지불하는 금액에 상한선을 돌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음
- 이렇게 되면 유럽에 원유를 수출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감소해 러시아로서는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EU는 “러시아산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전했다
- EU 의회가 25일(현지시간) **정부 보조금을 받은 EU 바깥 기업의 인수·합병(M&A)이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이는 EU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보조금 지급에 따른 공정경쟁 왜곡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지적

(서울경제 2022.04.26.) 조양준 기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do?NEWSID=26424304>

(연합뉴스 2022.04.26.) 김윤구 기자
<https://www.yonhap.co.kr/economy/2022/04/26/20220426013700037mpg-115m>

2. 유럽에 ‘배터리 여권’ 생긴다…구성물 및 탄소발자국 표시

- 자동차 및 배터리 제조업체 등 11개 협력사로 구성된 독일 출자 컨소시엄이 **유럽에서 배터리의 내용물과 탄소발자국 추적이 가능한 ‘배터리 여권’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독일 경제부가 25일 발표함
- 해당 컨소시엄은 820만 유로(109억원)의 정부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관련 분류와 표준은 이미 개발한 상태이며 각 배터리에는 전기차 소유자, 기업, 규제기관이 배터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QR 코드가 부착될 예정임
- 지난 10일 EU의 배터리규정이 통과되면서, 유럽연합에서 판매되는 충전용 전기차와 산업용 배터리는 2024년부터 탄소발자국 공개 의무화, 2027년부터 배터리 탄소배출량 상한선 적용을 받고 있음

(임팩트온 2022.04.26.) 홍명표 기자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10000702>

3.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 유럽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초안 발표

-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2021년 5월부터 개발해온 CSRD 보고표준 초안을 발표**
- EU는 2018년부터 비재무보고지침(NFRD)을 시행해왔는데,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는 이에 대한 업데이트이며, 기존에 지속가능성 공시 기업의 숫자가 1만2000개였다면 5만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보다 상세한 보고요건 도입과 보고 정보에 대한 감사보증(assurance)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번 공개초안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범주로 구분되며 환경은 기후변화, 오염, 수자원 및 해양자원,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 등이 포함되고, 사회에는 자체인력, 가치사슬의 근로자, 영향 받는 지역사회,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가 포함되어 있음
- 거버넌스는 거버넌스,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비즈니스 이행 등이 포함되며 이중중요성의 개념, 가치사슬 지속가능성 요인에 대한 유의적인 공시(스코프3공시 요구, 공급망 인권실사)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

(ESG TODAY 2022.05.02.) Mark Segal 기자
<http://www.esgtoday.com/eng/voices/pressroom/european-sustainability-reporting-standards/>

1.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식음료 마케팅 않겠다” 선언한 유니레버

- 유니레버가 아동에 대한 책임있는 마케팅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원칙에 따라, **전통 미디어와 소셜미디어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식음료 마케팅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음
- 새로운 원칙에는 16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저장하지 않고, 이들에게 주로 어필하는 인플루언서, 연예인, 소셜미디어 스타들도 이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음
- 새로운 규정은 2023년 1월 마감시한으로 유니레버의 포트폴리오 전반에 적용되며 유니레버는 인플루언서들에게 명확한 조항을 공개해 아동 호소를 할 때 인플루언서 콘텐츠로 제한하고, 교육캠페인 참여를 제외한 학교 내 브랜드나 제품홍보를 지속적으로 자제할 것을 약속했음

(ESG Today 2022.04.26.) Mark Segal 기자
<https://www.esgtoday.com/unilever-to-end-marketing-of-food-and-beverages-to-children-under-16/>

2. 지난해 세계 석탄발전 설비 9% 증가, 한국 ‘기후약당’ 3위 굴욕

- 기후솔루션은 26일 ‘석탄의 경제 대전환 2022: 세계 석탄발전소 추이 조사’ 보고서를 발표함
-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지난해 중국과 인도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의 석탄발전 설비를 늘린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 지난해 신서천화력발전소와 고성하이화력발전소 등 신규 석탄발전 설비용량을 3.1GW 늘렸는데, **신규 석탄 설비를 늘린 상위 5개국 중 유일한 OECD 회원국**이라 눈길을 끌고 있음

(비즈니스포스트 2022.04.26.) 은주성 기자
https://www.businesspost.co.kr/EP?command=article_view&num=27848

3. 한국 ESG 공시기준 자문 전문가그룹은 누구?... ISSB 워킹그룹, 한중일 중 한국만 빠졌다

- 회계기준원을 중심으로 한국이 채택할 ESG 공시기준 제정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최근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자문위 구성이 완료되었으며 ESG 공시기준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KSSB 설립도 논의 중**이라고 밝혀짐
- 현주석 SK PL(프로젝트리더), 전민선 네이버 그린임팩트 부장, 위은실 포스코 ESG그룹 팀장, 김종필 LG화학 지속가능전략팀장, 문혜숙 KB금융지주 ESG본부 상무, 박정혁 삼성생명 회계담당 위원, 황소영 신한금융지주 ESG기획팀 부장, 권미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신병오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송수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형순 금감원 기업공시총괄팀장, 조봉현 한국거래소 ESG지원팀장, 김형석 기업지배구조원 정책연구본부장 등이 자문 위원으로 참석
- 한편,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지난달 말 워킹그룹을 발표했는데, EU위원회(EC), EU 재무보고자문그룹(EFRAG), 일본 금융감독청(FSA), 일본 지속가능성기준준비위원회(SSB of Japan Preparation Committee), 영국 금융감독청(FCA),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중국 재무부 등이 포함됨
- **한중일 중 한국만 빠진 상태이며 ISSB는 새로운 자문기구인 ‘지속가능성 표준 자문포럼’을 다음 분기에 출범한다고 밝혔음**

(임팩트는 2022.05.02.) 박란희 기자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idxno=355>

1. 전경련 “韓, 도심항공기체 개발 기업 겨우 4개…美는 130곳”

- 도심항공모빌리티(UAM) 관련 기술 수준이 선진국의 60~70%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음
-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따르면, UAM 기체를 개발 중인 한국 기업은 현대차, 대한항공, KAI,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개에 불과하며 이는 전 세계 UAM 기체 개발 기업(343개)의 1.2% 수준인 반면, 미국의 관련 기업 수는 130개, 영국 25개, 독일 19개, 프랑스·일본 12개를 기록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 정부도 UAM의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시험·실증과 서비스·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장기 K-UAM 로드맵’을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서고 있음
- 다만, 자율비행기술과 모터, 관제 등 주요 분야의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60~70%에 불과하다는 게 전경련의 지적임

(서울경제 2022.04.28.) 윤경환 기자
<http://www.seaily.com/news/News25484414C>

2. “국내 ESG 인증, 국제인증업무기준(ISAE 3000) 적용 6%”

-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공개한 ESG 보고서가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지만, 국제적으로 높은 신뢰성을 인정받는 ‘국제인증업무기준(ISAE 3000)’이 적용된 비율은 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인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ESG보고서 발행 국내기업 179곳 중 ISAE3000 기준 인증은 12건으로, 6.7%였고 80% 가량은 영국 어카운터빌리티(Accountability)사에서 제정한 ‘AA1000AS’를 사용함
- 인증기관을 보면 KMR한국경영인증원이 31%, BSI그룹코리아가 12%, 한국품질재단이 8%, 회계법인 3% 순으로 나타남. 그린워싱과 기업공시의 신뢰성이 중요해지면서, 지속가능보고서 인증 표준인 ISAE3000과 AA1000AS에 관해서도 이슈가 나오고 있음

(내일신문 2022.04.27.) 이경기 기자
http://www.naeil.com/news_view/22_04_27_0333

3. 최태원 “‘세금’ 아닌 ‘돈 버는’ 탄소절감 메커니즘 만들어야”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28일,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서 “기업들은 탄소중립에서 ‘돈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말한다”라면서 “특히 탄소중립의 ‘비용편익’과 에너지 정책 효과를 정량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최태원 회장의 ‘넷제로 경제성장론’은 탄소중립을 통해 새로운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미로, 대한상의 경제연구소(SGI)는 편익을 2100년까지 약 5500조원으로 추정했음

(아시아경제 2022.04.28.) 문채석 기자
<http://news.asiae.co.kr/article/202204281044471333>

(한국경제 2022.04.28.) 박신영 기자
<http://111.news.koreadaily.com/news/022004281942104210220429>

1. 카카오, 기후위기 대응 원칙 수립...ESG 경영 강화, RE100과 SBTi 가입

- 카카오가 기후위기 대응 원칙을 수립하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액티브 그린 이니셔티브(Active Green initiative)’를 28일 발표함
-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 더불어,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넷제로’를 추진하기로함
- 카카오는 내부 탄소배출 감축 노력, 이용자들의 친환경 소비,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등을 내세우며 ‘카카오 탄소 지수’를 공개할 예정이며 RE100과 SBTi(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가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힘

(아시아경제 2022.04.28.) 이승진 기자
<http://view.asiae.co.kr/article?idxno=20220428010294>

(연합뉴스 2022.04.28.) 한혜원 기자
<http://www.gnnews.com/view/4620220428000017?topid=125m>

2. ‘성별 다양성’ 적용 대상 기업 10곳 중 2곳에 여성이사 없어

- 이사회를 특정 성으로만 채우지 못하도록 한 법률 시행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적용대상 기업 열 중 둘은 여전히 여성 이사가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상장사 이사회의 여성 비율은 8.7%(2021년 기준)로 중국(13.8%), 프랑스(45.3%), 독일(34.1%), 미국(29.7%)보다 낮은 수준임
- 한국이에스지(ESG)연구소가 28일 발표한 2022년 정기주주총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이사가 1명도 없는 31개사(19%)는 8월 5일 전까지 요건을 맞춰야 하며 엘에스(LS), 대우건설, 아시아나항공,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등이 이에 해당함

(한겨레 2022.04.28.) 한광덕 기자
http://www.hani.co.kr/site/economy/economy_general/2022042801

3. ‘시멘트세’ 대신 332억 상생기금...시멘트업계, 지역주민 돕는다

- 쌍용C&E를 비롯한 7개 시멘트사들은 공장을 운영중인 강원, 충북지역에 총 332억원의 시멘트 산업 지역 사회공헌 상생기금을 마련함
- 앞서 연 250억원 기금 조성 약속을 한 데 따른 것. 상생기금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신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사업확장에 2027년까지 지역사회 사회공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고 밝힘
- 정치권에서 시멘트생산량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시멘트 톤당 500-1000원의 지방세를 걷겠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 된 것에 대한 대응이며 중견기업연합회는 시멘트1톤당 1000원을 과세하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475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함

(이데일리 2022.05.02.) 함지현 기자
<http://r.news.nes.com/site/economy/economy/2022050201?topid=125m>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4.25(월) ~ 2022.4.29(금)

제공일시 2022 05 0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UN PRI, EU 택소노미 도전과제와 권장사항 담은 ‘테스트 보고서’ 공개

-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은 유럽연합(EU)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녹색분류체계)를 이행에 따른 도전과제와 극복을 위한 권장사항을 담은 ‘택소노미 테스트 보고서(Testing the taxonomy report)’를 지난 28일(현지시간) 공개

(UN PRI, 2022.4.28)
<https://www.unpri.org/for-policy/implementing-the-taxonomy-an-update-to-the-prior-testing-the-taxonomy-report-2022-article>

- 이번 보고서는 UN PRI 실무자 그룹(TPG)이 2020년 9월 공개한 ‘PRI의 택소노미 테스트’의 후속 보고서. TPG는 EU 택소노미를 탐구하고 실제 적용을 공유하기 위해 2019년 UN PRI 내부에서 발족된 그룹으로, 블랙록, 모건스탠리 등 40여개 굴지의 투자사로 구성되어 있음. 2020년 9월 보고서에서는 TPG 소속 기업의 35개 이상의 EU 택소노미 적용 사례 연구와 그에 따른 우려사항 및 권장사항이 담겨 있음. 이 같은 내용과 후속 조사(금융사 인터뷰 등) 결과를 토대로 금융계 전반이 직면할 수 있는 과제를 식별해 해결방안과 지침을 이번 발간 보고서에 담은 것임

- 2020년 6월 유럽연합이 채택한 그린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담은 분류 체계. 즉, 어떠한 활동이 친환경적인지를 분류해주는 체계라고 보면 됨. 이러한 택소노미는 EU의 2050 넷제로(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 중 하나임.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과 활동에 민간 투자를 더 많이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금융 투자 활동 및 사업이 친환경적인지 분류해주는 체계가 밑바탕 되어야 함. 이에 따라 택소노미는 EU의 기후, 환경 목표에 맞는 민간 투자 목적의 경제 활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과 조건을 담고 있음

-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녹색 분류체계인 택소노미가 금융섹터에서 기본적으로 투자상품의 환경성과를 측정하고 파악하는데 사용되지만, 추가적으로 △수혜자(beneficiaries) 지속가능성 선호도 평가 △지속가능한 투자 기회 식별 △현재 및 잠재적 보유지분에 대한 (지속가능성 측면) 실사 △녹색 금융 상품 설계 △스튜어드십 활동 안내 △투자 포트폴리오 지속가능성 성과 측정 등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택소노미와 영향권에 있는 지속가능금융공시제도(SFDR)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융섹터가 이를 적용함에 있어 우려사항이 존재한다고 보고서는 분석. 특히 데이터 활용 측면과 기준, 운영 측면에서 택소노미를 적용하는 데 따르는 우려사항이 있다고 보았으며, 그에 따른 해결 권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식별해 제시

1. 데이터 측면

우려사항/도전과제	권장사항
<p>[이용 가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PI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항상 사용할 수 없음 - 비금융시장 참여자는 2022년부터 택소노미에 따른 공시 요구받음 - 非EU 기업 및 중소기업(SME) 경우 데이터 가용 특히 제한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및 EU 밖에서 운영되는 기업을 포함해, SFDR 및 NFRD 의무를 벗어나는 기업과 거래할 시, 공시 이점을 공유하고 인식을 확대시켜야 함
<p>[세분성/Granular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PI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항상 사용할 수 없음 - 수익(Revenue)에 대한 수치는 종종 (녹색) 활동 유형 별로 세분화되지 않음 - 지출 데이터 결핍은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에 대한 평가를 제한시킴 - 수익률 내역은 종종 녹색채권에서 사용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투자자와 협력해 택소노미에 따른 수익, 자본 지출, 운영 비용에 대한 데이터 공개/검증 요청해야 함 - 제3자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에 대한 실사 수행 필요함. 시간을 할애해 데이터 제공자의 방법론, 적용 범위, 용어 및 평가 등의 모든 부분을 이해할 필요 있음
<p>[일관성/ Consistenc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가능한 데이터는 택소노미 분류법 요구사항 (classification requirements)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련 없거나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일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공급업체와 정기적으로 품질을 확인하고 최신 방법론을 항상 유지 및 평가 관련 이슈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함 - 검증된 데이터/수치만 포함시키고, 데이터 제한 사항은 명확히 제시해야 함

2. 기준(Criteria)

우려사항/도전과제	권장사항
<p>[非EU 투자에 대한 기준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선별 기준(TSC)*의 대부분은 특정 경제활동과 관련된 유럽연합 표준을 참조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경우, 발행자가 기준 여부 충족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기준에 대한 非 EU 투자 평가가 어려울 수 있음 <p>*환경 목표에 상당히 기여하는 경제 활동을 유럽표준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나열하여 그것이 다른 목표에 위해를 가하는지 확인하는 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소노미 기준, 기존 인증체계 및 기타 非EU 표준 간의 대응표(correspondence tables) 개발에 정책 입안자와 규제당국 협력 필요함
<p>[정의/Defini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TSC는 명확하지 않거나 해석이 필요하기도 함. 임업 활동을 예로 들자면, 이 활동에서의 DNSH**는 살충제와 비료 사용의 최소화이지만 어느 정도까지의 사용이 최소화인지에 대한 명확성이 없음. 때문에 지역 규제 또는 제3자 산림인증체계를 준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준수해야 하는 특정 임계값이 있는 것인지 등의 모호성이 존재함 <p>**EU 택소노미에선 친환경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환경 목표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DNSH (Do No Significant Harm, 심각한 피해가 없을 것) 원칙을 세우고, 이를 위반하는 활동은 택소노미에서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PI를 계산할 때 모든 가정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하며, 감사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 투명성을 높여야 함 - 기준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투자기업과 협력 필요함 - 제3자 검증업체를 활용해 택소노미 정렬 공시 내용을 증명해야 함
<p>[기간/Timefram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TSC에서는 임계값을 충족하거나 조치를 취하기 위한 기간이 설정되어 있음. 그러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판단/평가를 위해 어떠한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소노미 기준과 범위, 내용을 개발할 때 기간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 입안자와 규제당국의 협력이 필요함

3. 운영(Operations)

우려사항/도전과제	권장사항
<p>[리소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노미를 시행하는 데 있어 많은 리소스가 소모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성을 촉진하기위해 투자팀, 데이터 전문가. 준법(compliance) 부서 등 간의 업무 협력이 필요함 - 탄소노미 적용을 소규모로 먼저 시행할 것을 추천. 기존 프로세스와 리소스를 처음에 최대한 활용한 뒤,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조정해 나가야 함 - 데이터 공급자를 활용할 필요.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임
<p>[표준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SC 및 규제에 대한 업데이트가 빈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노미를 시행하는 부서를 위해 TSC 등이 어떻게 개발되고 진화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 있음